

# “잘 가르치는 대학... 모든 구성원과 소통에 힘쓸 것”

## 대학가 소식

### 삼육대 ACE+중간평가 성과 인정 3차년도 사업비 10억 확보

삼육대(총장 김성익)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중간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3차년도(2019년 3월~2020년 2월) 사업비를 계속 지원받는다. 21일 밝혔다.

삼육대에 지원되는 재정지원 규모는 10억원으로, 삼육대는 향후 ACE+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삼육대는 전인적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SU-MVP+ 교육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식, 소통, 창의적사고, 자기주도, 글로벌, 나눔실천 등 전인역량을 갖춘 MVP+형 인재를 양성한다.

###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 주한인도상공회의소와 협약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인도연구소인 문한국플러스(HK+)사업단(단장 김찬완)이 주한인도상공회의소(회장 와수 데브 톰베)와 지난 17일 교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술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도의 경제와 비즈니스 관련 이슈와 관련된 세미나와 특강을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한인도상공회의소는 한국외대 인도학 분야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와수 데브 톰베 회장은 “국내 최고의 인도 관련 연구기관인 인도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리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사이버대학교

####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 성료 전세계 17개국 163명 참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영국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협회와 공동 주최한 '제1회 영 차이콥스키 국제온라인피아노콩쿠르' 시상식이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미아동 서울사이버대 차이콥스키홀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는 세계 최초로 진행된 '17세 이하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로, 서울에서 결선과 시상식이 개최돼 많은 화제를 모았다. 콩쿠르에는 전세계 17개국 163명의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참가했고, 두 차례 온라인 경연을 통해 최종 7명이 결선에 진출했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 원격대학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 최초로 정통 클래식 피아노과를 신설, 국내 최초로 해외 원격피아노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모스크바 국립음악원과 그네신음악원의 교수로부터 온라인 레슨을 진행 중이다. /한용수 기자

### 강수경 덕성여대 총장 취임

2020년 창학 100주년 영광자생·자립·자각 실현 감사 덕성만의 '교육 혁신' 모색

“덕성을 잘 가르치는 대학, 구성원이 행복한 대학, 구성원과 소통을 중시하는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강수경 덕성여대 신임 총장이 지난 18일 오후 교내 약학관 아트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학의 본분인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덕성학원 박상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덕성여대 김영숙 총동창회장 등 내외빈 250여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에서 강 신임 총장은 “덕성은 2020년 창학 100주년이라는 한국 교육사회에서 보기 드문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진 교육중심 명문사학”이라며 “덕성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생, 자립, 자각의 창학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덕성여대 제11대 강수경 총장이 지난 18일 오후 교내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덕성여자대학교

또 “제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대학을 포함한 교육 기관들은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소명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며 “덕성의 미래 동력 창출을 위해 우리 덕성여대만이 할 수 있는 교육 혁신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이를 위해 덕성여대를 ‘잘 가르치는 대학’, ‘구성원이 행복한 대학’, ‘구성원과 소통을 중시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덕성의 강한 잠재력과 찬란한 미래 100년을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먼저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소중한 잘 가르치는 대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행복한 대학을 만들고자 한다”며 “구성원과 소통을 중시하는 대학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형성된 공감대는 우리 덕성여대의 미래 동력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임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대학 발전은 누군가가 혼자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학 구성원이 합심해

각고의 노력을 할 때 그 결과가 빛날 수 있다”며 “덕성학원 창학 99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날에 제11대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덕성학원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연세대 법학과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5년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로 부임해 평가처장 등을 역임했다. 학교 밖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심의위원을 맡은 바 있으며, 도봉구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총장의 임기는 올해 2월 1일부터 2023년 1월까지 4년이다.

이날 취임식은 ‘창학 제99년 기념식’이 함께 진행됐고, 장기근속 교직원 24명과 우수 직원·부서 표창이 이뤄졌다.

한편 덕성여대는 여성독립운동가인 차미리사 선생이 1920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설립한 조선여자교육회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이 다른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해 자력으로 세운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고려대-KEB하나은행, 블록체인 맞손... 산학 시너지 UP

### 학생증카드 발급에 기술 적용 등 블록체인기술 공동연구 업무협약

고려대학교와 KEB하나은행이 블록체인기술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고려대는 학생증카드 발급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등 학사 서비스 혁신에 나서고, KEB하나은행은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한다.

양 기관은 지난 19일 오전 고려대 본관에서 블록체인기술 사업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술 연구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수많은 컴퓨터에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 공동 연구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및 콘텐츠 공유 ▲블록체인을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창업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양 기관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산학(産學)간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고려대와 KEB하나은행은 기존에도 블록체인 관련 연구를 추진해 왔다. 고려대의 경우, 학계와 정부, 기업 등



이영환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 연구교수(왼쪽부터), 이성용 KEB하나은행 블록체인 신서비스팀장, 김경호 KEB하나은행 글로벌디지털센터장,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 이진한 고려대 연구부총장, 정순영 고려대 연구기획본부장, 김은기 고려대 빅데이터 융합사업단장,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 연구소장, 김형진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 연구교수. /고려대

의 참여로 만들어진 블록체인연구소(연구소장 인호)와 빅데이터융합사업단(단장 김은기) 등이 블록체인 관련 연구와 사업모델 개발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KEB하나은행 역시 최근 블록체인 신규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대규모 특허출원을 통해 은행권 블록체인 사업 본격화에 앞장서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의 첫 사업

으로 '고려대 학생증카드 발급'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기존 프로세스의 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학생증카드 발급 대상자의 학적 정보를 수기로 학교에 검증을 받아 최종 확인하는 등 발급까지 절차가 복잡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이용하면 양 기관에 학생증카드 발급 대상자의 학적 정보를 공유, 자동으로 상호 정보가 검증됨에 따라 업무량과 발급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 기대된다.

고려대는 학생증카드 발급에 이어 다양한 학사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등 학사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이진한 고려대 연구부총장은 “학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학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블록체인을 비롯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고려대가 계속해서 선도하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 교육부 진로교육현황 활용 우수논문 공모전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공모전 '제1회 진로교육 현황조사 활용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가 올해 정부혁신과제로 추진하는 '국민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일환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부 정보·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취지다. /한용수 기자

기존에는 진로교육 현황 조사의 분석 보고서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통계표 작성 등에 사용되는 기초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까지 공개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공공데이터 포털,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포털에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받아 정책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 “韓 교육 배우자”... 中 공교육 싱크탱크 방한

서울시교육청은 중국의 공교육 싱크탱크로 알려진 중국21세기교육연구원(회장 동평양, 이하 21세기교육연구원) 등 중국 교육 관계자 18명이 22일~26일까지 한국의 주요 교육기관을 방문해 양국의 초·중등 교육 발전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21세기교육연구원은 2002년 설립된 중국의 공립 교육정책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중국의 주요 교육 정책과 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방문단은 첫날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원,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동대문중, 서울신동초 등 4개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들러 조희연 교육감과 간담회도 갖는다. 23~24일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관계 교육기관을, 25일엔 충청북도 관내 초등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